

<한겨레>  
92.4.28  
15면

# “대리투표 은폐 위해 부대일지 사후 조작”

## 국방부조사단 “인사계 부정행위 없었던 일로하자”

### 이원섭일병 구속적부심서 주장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투표를 폭로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20) 일병은 2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인사계의 투표부정 사실 등을 빼지고 중용받았으며, 부정 사건이 알려진 뒤 대리투표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부대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14면>

이 일병은 또 “중대장의 지시로 지난 18일 중대원들의 여야 지지성향을 묻는 사전 모의투표를 내무반에서 실시했으며, 투표 당시 행정반에 설치된 기표소에는 칸막이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일병 가족과 재야단체 회원, 민주당 관계자 등 방청객 40여명이 지켜본 가운데 2시간10분 동안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이 일병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이 일병의 대리기표 행위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고 △투표부정을 한 인사계 등이 입건 조차 되지 않은 채 사병을 구속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 일병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 일병을 지난 3일 구금한 뒤 7일이 지난 10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군사

법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구금이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관인 김시동 대위는 “이 일병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일병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결과를 24시간 이내에 변호인단에 서면통보할 예정이다.

**유엔 환경개발회의 대응**  
**민주당 특별기획단 구성**

민주당은 22일 유엔환경개발회의 주최로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지구환경특별회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당 특별기획단을 편성해 독자적 대응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부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협약 타결 결과에 따라 프레온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국산 냉장고는 물론 반도체와 화학산업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7차 5개년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러시아 핵기술

**【서울=AP 연합 특약】**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기술을 포함한 첨단 핵기술의 판매를 제의했다고 방한중인 니콜라이 포노마레프 스페르노이 러시아 원자력학회 회장이 22일 말했다.

서울에서 개최중인 제7차 한국 원자력산업회의 및 원자력학회